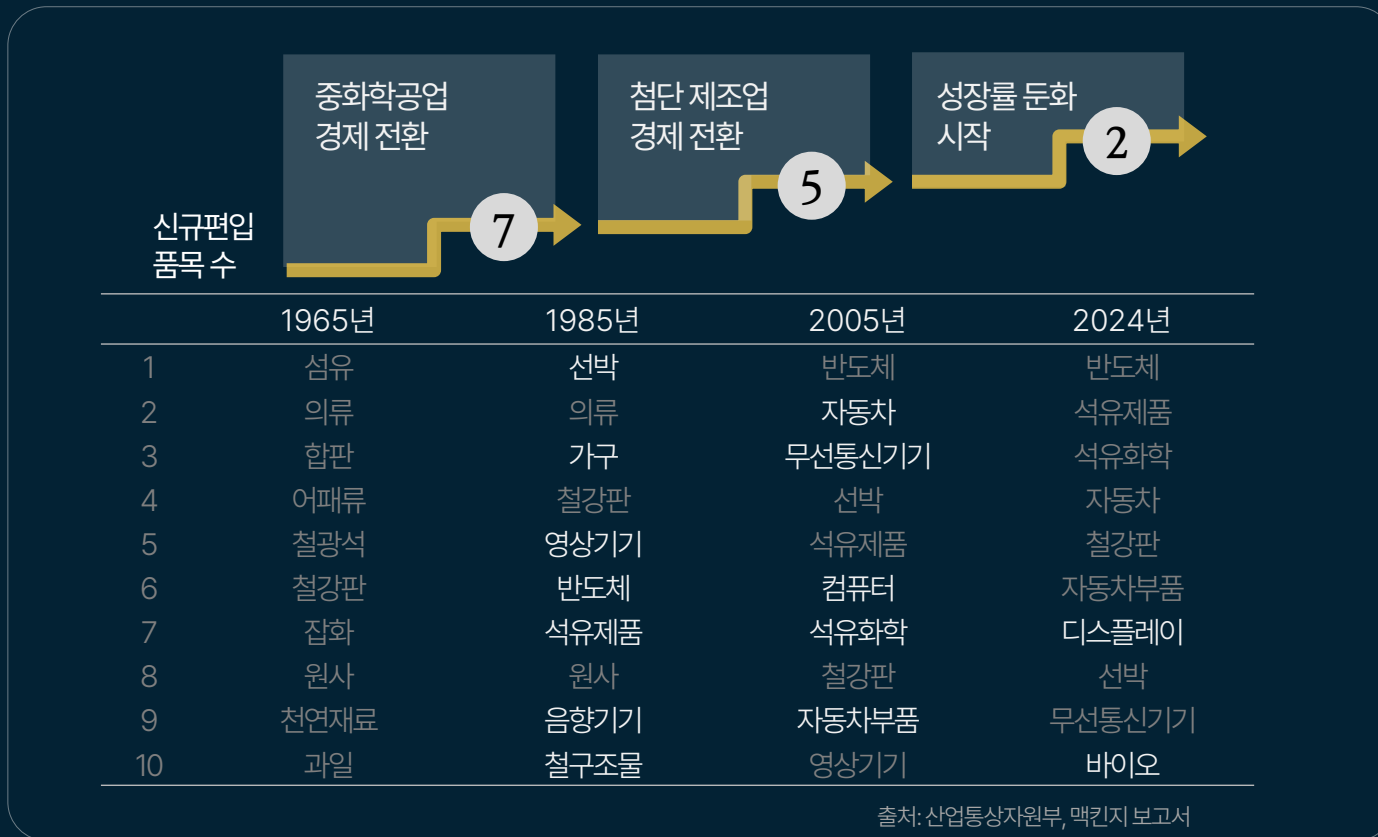


진정한 기업금융의 시대 : 첨단산업 성장·재편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

2025년 10월 15일

신성장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이 필요

대한민국 대표 산업은 20년마다 전환 →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 시급



금융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.

정책금융 주도의
담보대출 기반 대규모 자금공급에서

모험자본 공급 → 기업 성장
구조조정 금융 → 산업 재편 하는
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

그동안 금융투자업은 단기 수익에 치중하여, 신성장 산업 투자는 미흡

과거의 반성: 산업 전환 뒷받침 부족

부동산 PF에 치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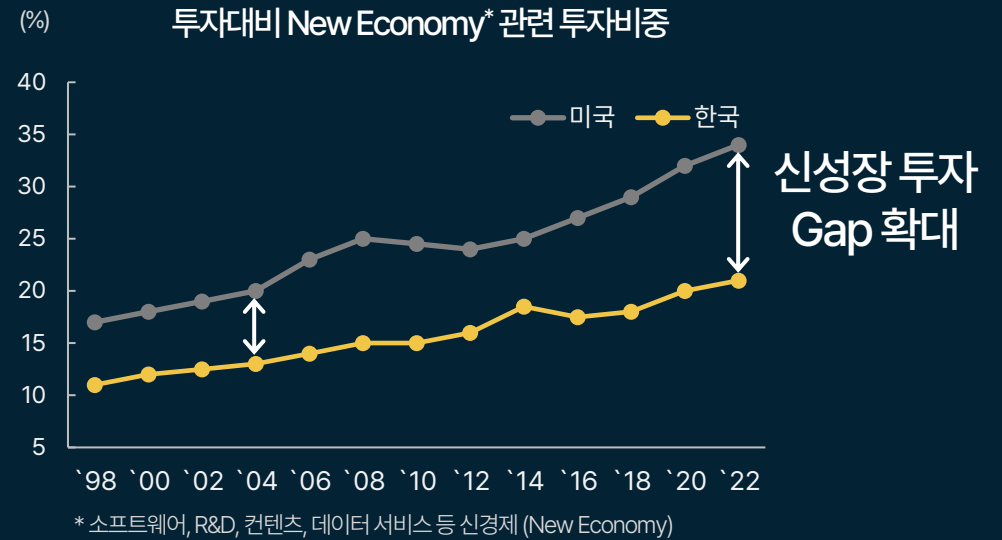
종투사 IB 업무 48%가 PF채무보증 ('24년 기준)

모험자본 공급 부족

종투사 모험자본 투자 비중 약 2% ('24년 9월 기준, 총자산 대비)

출처: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(2025.04, 금융위원회)

글로벌 대비 신성장 투자 격차 확대



출처: LSEG,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, 이제 금융투자업이 본질적 기능을 복원해야 함

제도적 기반

부동산 운용한도 하향

`27년까지 발행어음, IMA 운용 규모의 10%로 하향

모험자본 공급 의무화

`28년까지 발행어음, IMA 운용 규모의 25%까지 확대

종투자 확대 지정, IMA 제도 정비

실천 과제

1) 첨단산업 내 '혁신 기업' 기업의 수를 늘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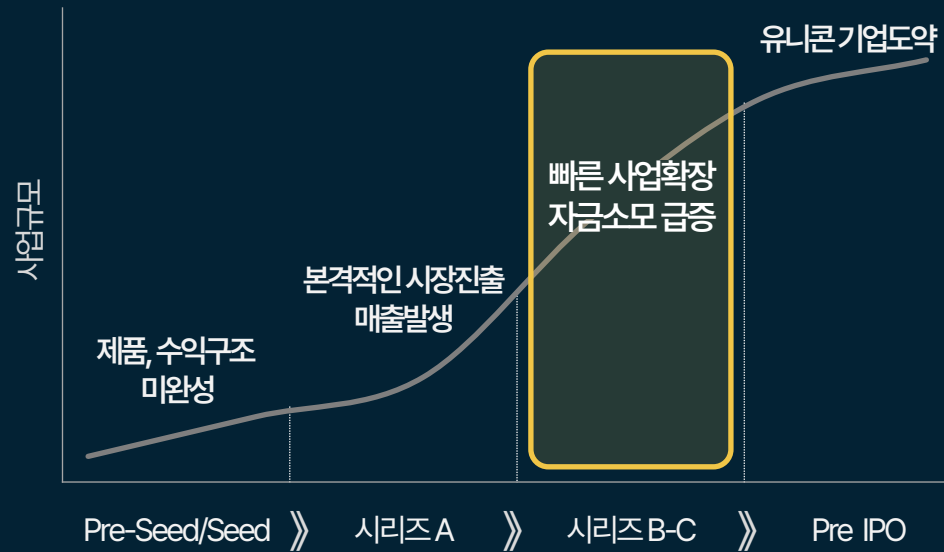
2) 구조조정 기능을 통한 '기업의 부활'

→ 진정한 기업금융의 기능 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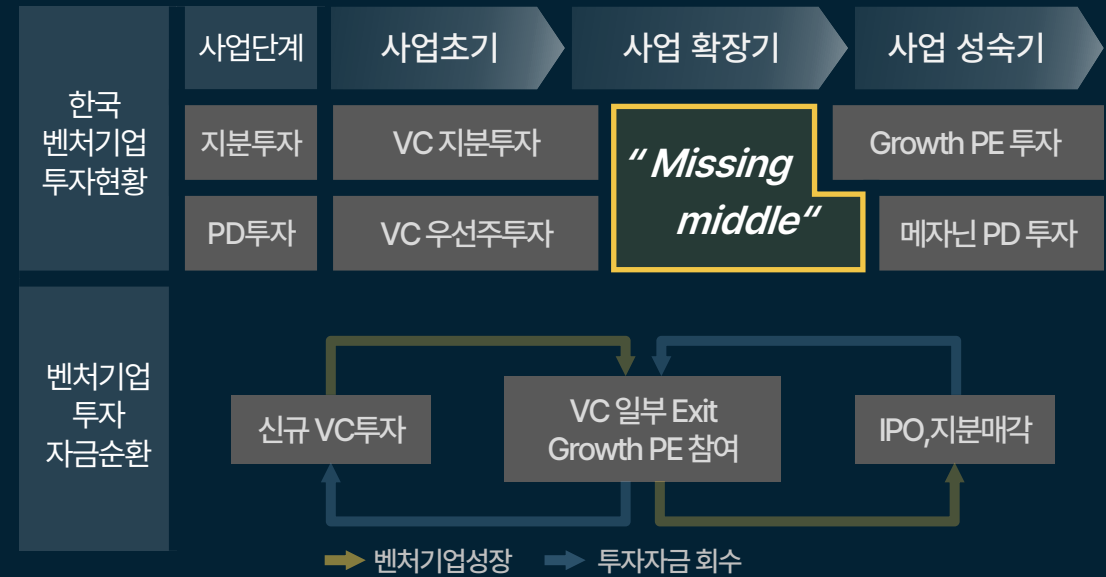
1. Missing middle 해소를 통한 기업 성장 지원

기업 성장·확장기 단계 자금 공백 → *Missing middle* → 성장 지연

신성장 기업의 성장 단계



확장기 자금 공백



제도와 시장환경이 받쳐줄 때, 혁신 기업의 성장이 가능 함

한국에서 출발 → 글로벌로 도약

국내 시장과 제도의 한계

출발
(2013~2015)

한국에서 육아 앱 '스마일패밀리'로 시작
→ 자금조달의 한계



전환
(2015~2016)

메시징 기능 → B2B SaaS 모델로 전환



도약
(2016~2021)

Y Combinator* 합류 대규모 투자유치
→ 유니콘 등극 (기업가치 \$10.5억)

미성숙한 시장

*"국내 시장은 B2B SaaS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.
반면, 미국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면 곧바로 이해했다."*

(이코노미조선, 2021.04 김동신 대표 인터뷰)

투자시스템의 부재

*"시리즈A 때 한국식으로 인맥을 통해 투자자를 만났지만 잘 통하지 않았다.
미국은 투자자 설명회 미팅 협의서 검토 최종 서명이라는 업계 표준 절차가 있었다."*

(Weekly Biz, 2020.04 김동신 대표 인터뷰)

* Y Combinator : 에어비앤비, 드롭박스 등을 배출한 세계적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

1. Missing middle 해소를 통한 기업 성장 지원

Missing middle을 해소할 메자닌 PD와 Growth PE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부족

자금공백 해소책

선진국 대비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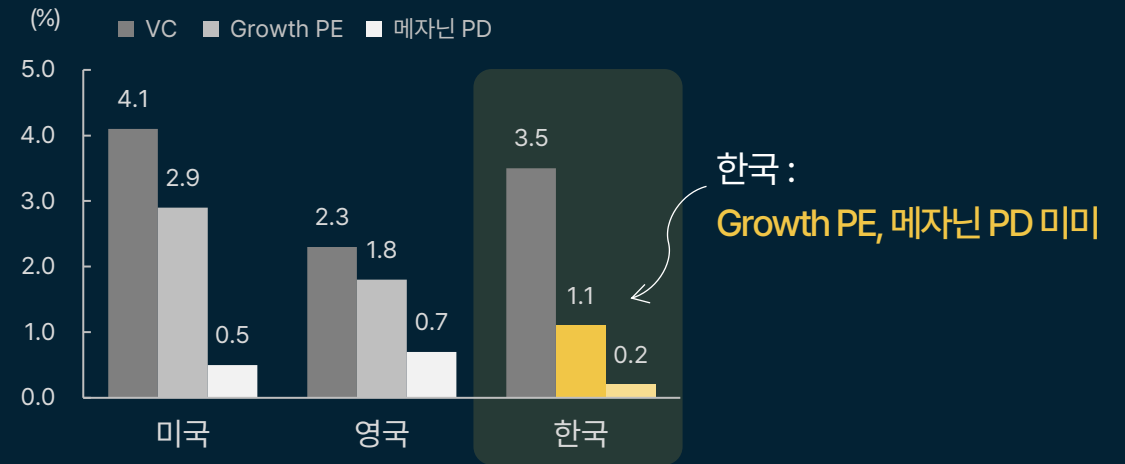
• 메자닌 PD

전환사채·후순위채 등으로
지분 희석 최소화 & 유연한 자금조달

• Growth PE

확장단계 기업에 소수지분 투자
경영권 위협 없이 자금조달 가능

GDP대비 투자비중 비교



출처: Bloomberg Preqin,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1. Missing middle 해소를 통한 기업 성장 지원

Growth PE, 메자닌 PD 활성화를 위해서는
투자자가 안심하고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

증권사: 투자 친화적 구조 설계

금투업권: 신뢰 기반 제도 정비

성장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환경 구축

(자금공급수단) 메자닌 PD 발행 주선 및 공동투자

(Exit기회 제공) 세컨더리·M&A 자문을 통한 회수 경로 확장

(기업구조 정비) 복잡한 지분구조 단순화 자문

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조성

(정보공개) 정보 비대칭 해소 → 재무, 지분구조 등 필수 정보 공개 확대

(제도 정비) 회계처리기준 명확화, 위험가중치 완화

(표준화) 계약조건·업무가이드라인 정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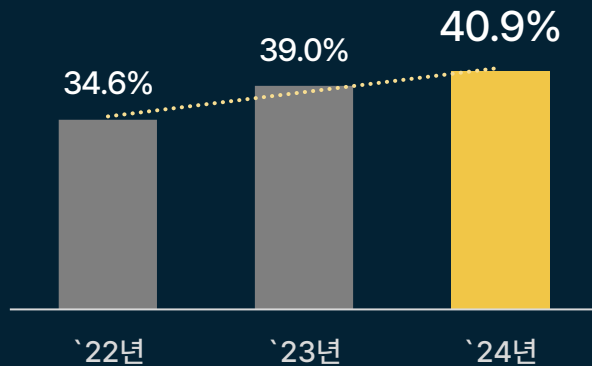
2. 전통 주력산업 재생·재활을 통한 산업 재편

기업 부실 확산과 전통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, 산업 재편이 불가피한 시점

기업 부실 위험의 구조적 확산

한계기업 비중, 역대 최고치 기록

이자보상비율 100% 미만 기업 비중 (외감기업기준)



출처: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(2025.02)

석유화학: 설비과잉·공급부담 심화

수익성 하락 → 차입의존도 확대

주요 석유화학기업 순차입금/EBITDA



출처: 한국기업평가,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철강: 내수·수출 부진, 공급 과잉

경쟁력 약화 → 재무부담 확대

주요 철강기업 순차입금/EBITDA



출처: 한국신용평가

사례2: 위기를 산업 재편으로 돌파한 사례 - 도시바

산업 위기 극복은 정부 주도과 금융의 실행이 함께할 때 가능

위기에서 턴어라운드까지

위기 극복의 실행 조건

위기
(2015~2017)

↓

재편
(2018~2023)

↓

턴어라운드
(2023~)

회계부정(2,248억엔) → 신뢰 상실
웨스팅하우스 원전손실 → 재무 위기
핵심사업인 낸드플래시, PC 사업 매각추진

해외 행동주의 펀드 개입 → 경영혼란
'23년, 일본산업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경영권 확보

'23년 상장폐지 후 대규모 감원·비수익 사업정리
인프라·에너지·디지털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 재편

정부 주도의 산업 재편

전략산업 보호와 개편은 정부 주도 필요

금융, 산업 재편 실행자 역할

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구조조정의 실행자로 기능해야 함

2. 전통 주력산업 재생·재활을 통한 산업 재편

산업 재편의 길, 정부는 제도를 마련했고 금융은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

정부의 의지

M&A 및 구조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신용공여 제도 개선

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(금융위)

석유화학 구조개편, 철강산업 친환경, 고부가가치 중심 전환

“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” 민관이 함께 본격 시동,
K-스틸법 연계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 (산업부)

금융투자업의 과제

- 특수상황 금융 활성화
NPL*, DIP**, Distressed Debt 투자,
구조조정 펀드 조성으로 위기기업 정상화 지원
- M&A 자문, 인수금융 확대
설비 통합, 산업재편 촉진
- 재무구조 개선, 신사업 전환 지원
비핵심자산 매각추진,
유동화-ESG채권을 통한 친환경 전환 자금 공급

* NPL (Non-Performing Loan) :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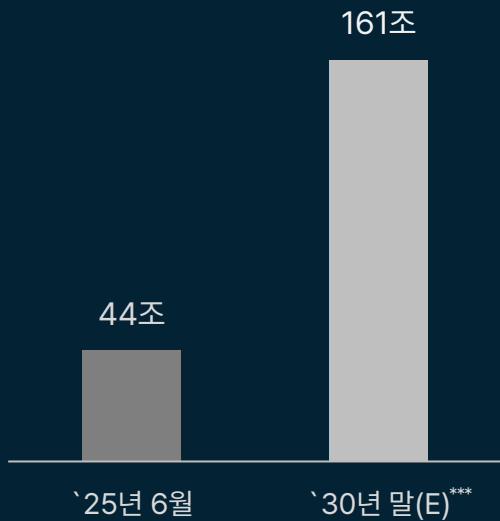
** DIP (Debtor-in-Possession) : 회생절차 기업에 제공하는 신규자금으로 기존채권보다 우선 상환순위

3. 실천으로 증명하는 생산적 금융

제도가 확대한 시장 잠재력, 이제는 기업 성장과 산업 재편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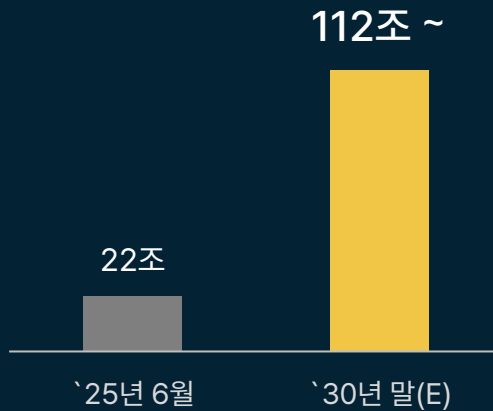
발행어음·IMA 시장규모* 확대

신규사업자 진출로 시장 최대x3.6배 증가
(최대한도 발행 가정)



기업금융 투자여력** 확대

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IMA·발행어음을 통한
기업금융 투자규모 최소x5.1배 증가
(시장규모x운용 최소비율 적용)



확대된 자금은 더 이상 단순 수익 추구가 아니라,
혁신기업의 성장과 전통산업의 재편을 이끄는
생산적 금융의 지렛대가 되어야 함

* IMA 신청 3개사(NH, 한투, 미래) 지정, 발행어음 신청 5사(삼성, 메리츠, 신한, 하나, 키움) 인가 시 총 9개 중투사(KB포함)가 IMA와 발행어음 한도 최대 활용을 가정

** IMA·발행어음의 기업금융 최소 운용비율 적용 (발행어음 50%, IMA 70%), *** 현재사업자+신규신청 사업자기준 발행가능규모로 추정, 정부정책펀드(150조, 5년 계획) 계획과 시기 연동

감사합니다.